



# 2016학년도 경찰대학 1차시험 (국 어)

※ 총 12쪽 45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 1. 다음 중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① 기차가 발차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 ② 나무 밑에도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 ③ 그날 이후로 철수의 생활 방식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 ④ 꼭대기가 평평하게 되어 있는 산지인 고원은 세계의 지붕이라 일컫는 파미르 고원을 비롯하여 많은 고원이 있다.
- ⑤ 박 선생이 마을에 이주한 후 명령을 거역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농장일도 열심히 하였고, 죄인으로 다스릴 증거를 잡지 못하였다.

### 2. <보기>를 참조할 때, 밑줄 친 부분의 '-시-'의 사용이 올바른 것은?

\_\_\_\_\_ <보기> \_\_\_\_\_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라는 종업원의 말에 손님은 말문이 막혔다. “커피가 ‘나오셨다’고요? 왜 커피를 높이세요?” 손님의 말에 당황한 종업원은 웃으면서 말했다. “죄송하세요.”

마트에서는 “그 상품은 품질이세요.”, 병원에서는 “주사 맞으실게요.”, 여행사에서는 “비수기 할인 가격이세요.” 등과 같이 어법에 맞지 않는 말들이 허다하다. 별생각 없이 틀린 높임말을 쓰는 동안 한국어 어법이 뒤틀리고 있다.

- ① 이 옷 색상 예쁘시죠?
- ② 보라 언니가 들어가시실게요.
- ③ 부탁하신 상품이 도착하시었습니다.
- ④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할인이 돼요.
- ⑤ 저희는 아이스 카푸치노도 제공하시세요.

### 3. ㉠~㉢에 해당하는 것 중, 맞춤법에 어긋난 단어가 포함된 것을 고르면? [3점]

\_\_\_\_\_ <보기> \_\_\_\_\_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쓴다.  
(순 우리말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것)

- ㉠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 뒷말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        |      |     |
|--------|------|-----|
| ㉠      | ㉡    | ㉢   |
| ① 나뭇가지 | 아랫마을 | 두렛일 |
| ② 벗가리  | 뒷머리  | 뒷입맛 |
| ③ 아랫집  | 잇몸   | 나뭇잎 |
| ④ 조갯살  | 텃마당  | 베갯잇 |
| ⑤ 칫바퀴  | 머릿말  | 땃잎  |

### 4. 밑줄 친 조사의 용법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 ① 구청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 ② 광주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됩니다.
- ③ 우리 학교에서 대민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 ④ 이번 체육대회는 부산 경찰서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 ⑤ 요양원에서 건강 달리기 대회를 열어 모두 즐거운 휴일을 보냈다.

### 5. 밑줄 친 부분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_\_\_\_\_ <보기> \_\_\_\_\_

철수는 외래어 표기법을 공부하면서 의문이 생겼다. 자주 쓰이는 외래어 중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씨비스]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표기는 씨비스가 아닌 서비스이다. 어두에서 된소리인 외래어들은 예사소리로 적었다. 예를 들어 ‘버스’가 [빠스]로 발음되지만, 버스로 적는다. 왜 [빠스]를 버스로, [씨비스]를 서비스로 표기할까?

- ①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
- ② 외래어 표기법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
- ③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대로 표기한다.
- ④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⑤ 외래어를 표기할 때에 새 글자나 부호를 쓰지 않는다.

### 6. <보기>를 참조하여, 한글 로마자 표기가 올바른 것을 고르면? [3점]

\_\_\_\_\_ <보기> \_\_\_\_\_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다.  
\* ‘ㄱ, ㄷ, ㅂ’은 어두나 모음 앞에서 ‘g, d, b’로,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 ① 옥천 Ogcheon    ② 백암 Paegam    ③ 설악 Seolak
- ④ 울릉 Ulleung    ⑤ 대관령 Daegwanlyeong

### 7. <보기>의 밑줄 친 ‘한 이치’에 해당하는 것은?

\_\_\_\_\_ <보기> \_\_\_\_\_

1876년에 태어난 주시경 선생은 어릴 적에 한문수학(漢文修學)을 하시다가 15세에 이르러 국문(國文)을 공부하면서 국어의 한 이치를 깨닫게 되었다. “종이와 붓과 먹과 벼루와 책은 선비가 쓰는 물건이라.”에서 ‘먹과’, ‘벼루와’ 같이 ‘과’와 ‘와’는 그 역할이 같지만 받침이 있는 글자 뒤에는 ‘과’가 쓰이고 받침이 없는 글자 뒤에는 ‘와’가 쓰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 ① ‘잠은 사람, 오는 사람’에서 ‘은’과 ‘는’의 관계
- ② ‘밥을 먹었다, 꽃이 피겠다’에서 ‘었’과 ‘겠’의 관계
- ③ ‘사람이 좋다, 나무가 자란다’에서 ‘이’와 ‘가’의 관계
- ④ ‘집을 빨리 짓다, 어서 빨리 가자’에서 ‘다’와 ‘자’의 관계
- ⑤ ‘철수는 벌써 갔고, 강수는 청소하며’에서 ‘고’와 ‘며’의 관계

**[8~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 바뀌 쓰기가 실천되면 사람들은 그 안에 숨어있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사례를 보자. 금연이 공적 기준이 되면, 흡연에 대해 사람들은 압박감을 느끼고 흡연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다. 언어 사용도 마찬가지다. 바뀌 쓰기가 공적 기준으로 되면 사람들은 사용하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인다. 때론 무심하게, 때론 제멋대로 뱉은 말들을 조심하면서 그 사람의 사회적 태도도 바뀐다.

미망인(未亡人)이란 단어에는 ‘(남편을)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부정적 뜻이 담겼다. 물론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미망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는 움직임이 사회적으로 실천되면, 남편과의 사별로 힘들어진 여성이 ‘미망인’이라는 지칭어로 상처받는 일은 줄어들 것이고, 사람들은 상처 주는 말, 차별적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차별적인 말을 바꾸는 것이 사소한 일이라는 사람도 있다. 일상에서 ‘그냥 말일 뿐이야’, ‘한번 말해 봤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문제이다. 언어가 언어일 뿐이라면, 왜 많은 나라에서 말에 의한 명예 훼손, 모욕, 협박과 위협 등을 법률로 정해 처벌하겠는가. ㉢이런 입장이라면, 원만한 자녀 관계, 부부 관계, 동료 관계를 맺고 이어가기 위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여 말하자는 조언이나 심리 강좌, 언어 강좌 등은 모두 쓸모없다고 주장해야 옳을 것이다.

**8. ㉠, ㉡과 문맥상, 어울리는 단어는?**

- ㉠                      ㉡
- ① 재고(再考)하기    성찰(省察)하게
  - ② 숙고(熟考)하기    관찰(觀察)하게
  - ③ 장고(長考)하기    감찰(監察)하게
  - ④ 사고(思考)하기    시찰(視察)하게
  - ⑤ 회고(回顧)하기    진찰(診察)하게

**9. ㉢과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은?**

- ① 막대기와 돌은 내 뼈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그 단어 자체는 나를 절대로 해치지 못하지.
- ② ‘노인네, 결혼가정’과 같은 말보다도 ‘어르신, 한부모가정’이라고 표현한다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지.
- ③ 라이프니츠는 ‘언어는 인간 정신을 그대로 본떠 놓은 것’이라고 하면서, 언어가 인간의 정신을 반영한다는 이론을 정립하였다.

- ④ 에드워드 사이드는 아시아를 ‘오리엔탈’로 부르는 것에 반대했어. 지구는 둥근데 유럽인이 아시아를 동쪽이라 부르는 것은 유럽 중심적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지.
- ⑤ 말은 행위의 수행과 관련이 있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은 ‘명령한다’와 같은 수행 동사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문장 속에는 나는 네가 너희 나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

**10.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점]**

<보기>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한글 문헌이 많이 나온 시기가 바로 후기 중세 국어이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일부를 인용한다. “불휘 기픈 남곤 브르메 아니 뵈썤 곳 도코 여름 하느니” 이 문장의 현대어역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게 되느니라’와 비교해 보면 현대 국어와는 그 형태와 의미가 다른 단어들이 보인다.

- ① 불휘    ② 아니    ③ 곳    ④ 도코    ⑤ 여름

**11. 아래 글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화분에 있는 꽃에 물을 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꽃을 키울 때 가장 어려운 일은 물 주기다. ㉠물이 적게 주어도 안 되고, 많이 주어도 안 된다. 품종에 따라 적당하게 주어야 한다. ㉡바람이 적당하게 통하게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 토양의 수분 상태를 미리 파악하면 물 주는 시기의 양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 먼저 나무로 된 이쑤시개를 2~3cm 깊이로 흠에 꽂고 30분 뒤 꺼냈을 때 이쑤시개가 1cm 이상 젖어 있다면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이 있다는 표시로 볼 수 있다. ㉢그 이상이면 물을 충분히 줘야 한다. 또 손가락으로 흠을 눌러 잘 들어가지 않으면 토양이 메말랐다는 증거이다.

물을 주는 방법도 중요하다. 보통 화초에 물을 줄 때 잎이나 꽃에 주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꽃에 물을 주면 꽃봉오리가 떨어지거나 빨리 시들게 되고, 잎과 잎 사이에 주름진 곳에 물을 주면 잎이 썩을 수도 있다. 따라서 물은 흠에만 주고 잎 사이 먼지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 주어야 한다. ㉤싱싱하고 아름다운 꽃을 오래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성을 쏟는 것이다.

- ① ㉠은 ‘주어도’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인 ‘물을’로 고치는 것이 좋다.
- ② ㉡은 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 삭제하는 것이 좋다.
- ③ ㉢은 내용상 잘못 쓰였기 때문에 ‘이상이면’을 ‘미만이면’으로 바꿔야 한다.
- ④ ㉣은 앞의 내용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를 ‘하지만’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 ⑤ ㉤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으므로 ‘~정성을 쏟는다’로 고쳐야 한다.

[12~13]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12. <보기>는 ‘자연 재해로 인한 재난과 나눔’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수정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I. 자연 재해의 피해	
- 국내와 국외의 자연 재해 실태	
II. 자연 재해의 종류와 예방법	
1. 종류	.....㉠
가. 기상 이변 : 태풍, 홍수, 가뭄	
나. 지반 재해 : 지진, 화산	
다. 생물 재해 : 병충해, 전염병, 풍토병	.....㉡
2. 예방법	
가. 기상 이변에 대한 대비	
나. 위험 시설물의 지진 대비 설계	
다. 국내와 해외 이동의 검역 철저	
III. 자연 재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방안	.....㉢
1. 각종 구호단체에 의연금 기부	.....㉣
2. 자원 봉사를 통한 이재민 구호	
3.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위험 경고	.....㉤
IV. 자연 재해의 재난 극복과 나눔의 세상 이룩	

- ① ㉠의 하위 항목으로 ‘교통 재해 : 지하철 사고, 선박 침몰 사고’를 추가해야겠어.
- ② ㉡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어서 ‘II-1-나’와 중복되므로 생략해야겠어.
- ③ 글의 완결성을 위해 ㉢은 ‘자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바뀌어야겠어.
- ④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을 ‘구호 단체에 대한 감독 철저’로 바뀌어야겠어.
- ⑤ 논리적 일관성을 고려해 ㉤은 II-2의 하위 항목으로 옮겨야겠어.

13. <보기>를 참고로 하여 ‘자연 재해의 피해자를 돕자’를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 문구를 만들 때, 아래의 조건에 맞게 쓴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를 이루게 할 것</li> <li>· 비유적 표현이 들어갈 것</li> <li>·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할 것</li> </ul>
---

- ① 숨 쉬는 것을 망설인 적이 있나요? 봉사와 기부는 지금 당장 필요한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 ② 봉사하는 것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재민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쓰다듬어 주어야 합니다.
- ③ 오늘 이재민을 위해 낸 우리의 의연금은 적금이 되어 나중에 우리를 살려주는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 ④ 오늘 당신의 기부가 갈증을 달래는 생명수가 된다면, 언젠가 누군가의 봉사가 당신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 ⑤ 태풍의 진로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자연 재해 이재민이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자연 재해 이재민이 될 수 있습니다.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공간을 배경으로 사물을 본다. 그리고 시간이나 사유를 비롯한 여러 개념들을 공간적 용어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용어가 중의적으로도 쓰이고 한편으로는 일상적 다른 용법으로 인해 혼란을 겪기도 한다. 공간에 대한 용어인 차원이라는 용어 역시, 다양하게 쓰인다. 차원의 수는 공간 내에 정확하게 점을 찍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양의 개수이다. 특정 차원의 공간은 한 점을 표시하기 위해 특정한 수의 양이 필요한 공간을 의미한다. 다차원 공간이란 집을 살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의 공간처럼 추상적일 수도 있고, 실제의 물리 공간처럼 구체적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을 1차원적 인간이라고 표현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관심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에 틀어박혀 스포츠만 관람하는 인간은 오로지 스포츠라는 하나의 정보로 기술될 수 있고 그 정보를 직선 위에 점을 찍은 1차원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다.

3차원 공간에서 사람의 위치를 정하려면 3개의 숫자가 필요하다. 4차원 공간의 점은 3차원 공간에 1개의 축을 더한 것이다. 차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는 뜻이다. 차원이 줄어지는 경우도 있다. 책을 각 면으로 나누면, 각각의 면들은 2차원이 된다. 반대로 ㉡2차원의 면을 조합하면 또한 3차원 물체가 재구성된다.

공을 환등기에 투영하면 뒷면의 스크린에 2차원의 원이 나타난다. 이처럼 투영은 차원이 높은 원래의 대상으로부터 정보를 삭감한다. 대상보다 낮은 차원의 그림을 그릴 때에 손실된 부분을 되살릴 수 있는 정보가 부가되기도 한다. 사진이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음영이나 색이 그러한 부가 정보이다. 르네상스 이후 대부분의 서양화가들은 원근법과 음영법을 사용하여 2차원 평면 위에 3차원 환영을 만들어 냈다. 서양 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3차원 세계를 2차원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낮은 차원의 이미지에서 어떻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더 적은 정보일 수도 있다. 우리는 대체로 3차원이 제공하는 정보 모두에 신경 쓰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세 번째 차원이 굉장히 얇은 물체라면 그 방향에서 일어나는 일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에 인쇄된 잉크도 실제로는 3차원이지만 그것을 2차원으로 여긴다고 해서 읽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미경으로 보지 않는 한, 잉크에 두께가 있음을 느끼지 못한다. 중요한 정보를 취하고 세부를 무시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행하는, 일종의 실용적 데이터 조작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다루는 방식일 따름이다. 우리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세밀하고 철저히 파고들지, 아니면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큰 그림을 그릴지 선택하는 것이다.

1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상상하는 추상적 공간도 다차원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② 일상 언어에서 차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인간의 특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 ③ 3차원의 환영은 차원이 줄어들 때 발생하는 정보들의 삭감을 보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 ④ 투영이라는 방법이나 그림 그리기는 실제의 사물을 한 차원 낮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 ⑤ 인간이 사물에 대한 차원을 실제와 근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사물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세부 정보보다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통찰력이 중요하다.

15. ㉠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정한 방향                      ② 각자 반대의 방향
- ③ 추상적인 방향                    ④ 구체적인 방향
- ⑤ 서로 독립적인 방향

16. ㉡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고차원 공간에 관한 정보를 표면에 기록한 홀로그래피
- ② 다큐멘터리 프로듀서가 시골의 전원생활을 실제 그대로 생생하게 기록한 영화
- ③ 중세 시대의 화가들이 여러 성인들의 모습들을 성당 벽에 그려놓은 모자이크 그림
- ④ 피카소와 같은 입체파 화가들이 여러 각도에서 본 이미지들을 한 그림 속에 모아서 입체적으로 표현한 회화
- ⑤ 액션 단층 촬영을 여러 장 하고, 그 사진들을 순서대로 포개 공간 속에서 환자의 영상을 입체적으로 재현한 것

[17~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호미도 늘히언마르논  
㉠날ㄱ티 들 리도 업스니이다  
아바님도 어이어신마르논  
위 덩더동성  
㉡어마님ㄱ티 괴시리 업세라  
아소 님하  
어마님ㄱ티 괴시리 업세라  
-작자 미상, 「사모곡(思母曲)」

(나)  
아바님 날 나호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곳 아니시면 이 몸이 사라질가  
㉢하늘 ㄱ툼 ㄱ업손 ㉣은덕을 어더다허 갑스오리  
어버이 사라신 제 섬길 일란 다허여라  
디나간 후면 애둡다 엇디허리  
평생애 곳터 못홀 일이 잇뿐인가 흐노라  
-정철, 「훈민가(訓民歌)」

(다)  
정월이라 십오 일에 완월(玩月)하는 소년들아  
흉풍(凶豊)도 보려니와 부모 봉양 생각제라  
신체발부(身體髮膚) 사대절(四大節)은 부모님께 타 닳스니  
태산같이 노픈 덕과 ㉤하해같이 기픈 ㉥절을 어이 하여 이  
즈리오  
천세만세 미덧더니 봉래 방장 영주산에  
불로초와 불사약을 인력으로 얻을손가 슬프다 우리 인생  
수욕정이풍부지(樹欲靜而風不止)하고 자욕양이친부재(子欲  
養而親不在)라  
공산낙목 일배상(一杯上)에 영결종천(永訣終天) 되겠구나  
일 년 삼백육십 일에 일일(一日) 사친(思親) 십이 시라  
음풍(陰風)이 적막하고 소식(消息)이 영절(永絶)하니  
슬프다 우리 부모 상원(上元)인 줄 모르시나  
그 달을 허송하니 이월이라 한식(寒食) 일에  
천추절(千秋節)이 적막하니 개자추의 님이로다  
원산(遠山)에 봄이 드니 불 탄 풀이 속잎 난다  
(중략)  
슬프도다 우리 부모 청명(淸明)인 줄 모르시나  
그 달 그믐 다 지나고 삼월이라 삼진날에  
연자(燕子)는 나라드러 옛 집을 차자오고  
호접(蝴蝶)은 분분하여 구색을 자랑한다  
㉦기수(沂水)에 목욕하고 ㉧무우(舞雩)에 바람 쏘여  
등동고이서소(登東臯而叙嘯)하고 임청류이부시(臨淸流而賦  
詩)로다  
㉨산화(山花)는 ㉩홍금(紅錦)이오 세류(細流)는 청사(靑絲)  
로다  
(중략)  
슬프도다 우리 부모 답청절(踏淸節)을 모르시나  
-작자 미상, 「사친가(思親歌)」

1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차별적인 태도를 슬퍼하고 있다.
- ② 부모의 은혜에 대해 보답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③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부모를 위해 공덕을 쌓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부모의 사랑이나 은덕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18. (나)와 (다)를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와 (다)는 모두 화자가 청자보다 우위에 서서 말하고 있다.
- ② (나)와 (다)는 모두 부모에 대한 애달픈 심정을 말하고 있다.
- ③ (나)는 (다)와 달리 대구법을 사용하여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 ④ (다)는 (나)와 달리 청자를 제한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다.
- ⑤ (다)는 (나)에 비해 시간의 흐름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19. (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대비적인 구도를 통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감탄 어구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④ 중간에 조음구를 삽입하여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다.
- ⑤ 일상적인 도구를 비유로 사용하여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20. (다)의 화자가 (가)의 화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후회해도 소용없으니 마음의 응어리는 풀어 버리시오.
- ② 부모는 자식 때문에 고생한다지만 그래도 인생의 낙은 자식에 있다오.
- ③ 힘들다고 포기 말고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오.
- ④ 부모와 자식은 동고동락하며 한평생 함께 살아가는 사이라오.
- ⑤ 다음 생에서는 자식으로서의 아픔을 겪지 말기 바라오.

21. ㉠~㉢ 중 비유 관계로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 ① ㉠과 ㉡
- ② ㉢과 ㉣
- ③ ㉠과 ㉣
- ④ ㉡과 ㉢
- ⑤ ㉢과 ㉣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37년(헌종 3) 16세 소녀 ㉠득열은 자신을 팔아 굶주림에서 벗어나고자 자매(自賣) 거래 전 관(官)에 ㉡소지(所志)를 올렸다. 이 소지에 따르면, 득열은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최근 연이은 흉년에 구걸하여 아버지와 자신의 목숨을 연명해 왔다. 옆친에 덮친 격으로, 올봄 기근이 심한 탓에 아버지를 굶주리지 않게 하려고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자 했지만 매수인 측에서 나중에 득열이 배신할 것을 염려하여 선뜻 사겠다고 하지 않았다. 이에 득열은 아버지를 봉양해야 하는 자신이 기아 직전의 불쌍한 처지에 이른 것을 헤아려 ‘몸을 팔아 구할하라’는 내용으로 ㉢입지(立旨)를 작성해 달라고 읍소했다. 득열의 호소에 대해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는 구활이 음덕일 뿐 아니라 자매 또한 전례가 있으니 의심하여 염려할 일이 아니라면서, 매수인이 안심하고 득열을 살 수 있도록 관에서 보증을 서 주는 데김[題音]을 내렸다.

관에서 자매하려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 정부는 기본적으로 양인과 천인 간의 신분 이동을 규제했다. 이러한 방침하에 양인을 천인으로 만드는 것 또한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했다. 그런데 대규모 기근과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져 정책 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굶주린 사람들과 유망민(流亡民)들을 모두 구제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더구나 조선 후기에는 이전보다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신분 이동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18~19세기에 자매가 용인되었다.

16세기 이후 조선 정부는 기근이 발생하면 재력을 지닌 사족들이 백성을 구제하도록 장려했다. 이 와중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유망민과 굶어 죽어 가는 백성이 대거 발생하자, 정부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굶주려 사망 직전에 이른 사람을 구제하여 살린 경우 그 사람을 부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시 ㉤사목(事目)을 반포하기도 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대규모 기근이 발생하면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버려진 아이들이 굶주려 죽음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거두어 살려 주면 노비나 ㉥고공(雇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생계가 어려운 백성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용인되었다.

조선 정부가 아사지경(餓死之境)에 이른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파는 것을 제한적으로 용인하긴 했지만, 자매자는 본래 양인이었다. 뒷날 자매한 당사자의 마음이 바뀌어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다고 호소한다면, 자칫 매수인은 양인을 꺾박하여 천인으로 삼았다고 의심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지 않더라도, 자매자가 다시 양인이 되고자 도망쳤을 때 그가 매수인의 도망 노비라는 사실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 둘 필요도 있었다.

이에 일부 매수인들은 자매 거래 전에 자매자로 하여금 관의 입지를 받아 오도록 했다. 입지는 ㉦입안(立案)보다 간단한 형태의 증빙 문서였다. 소지에 기재한 수령의 처분인 데김이 입지라는 명칭으로 증빙 문서의 역할을 했다. 자매자가 자매 거래 전에 입지를 받아 매수인에게 준다면, 매수인은 이 자매 거래가 굶어 죽어 가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행해진 일임을 인정한 관의 증빙 문서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었다. 매수인은 이 문서를 확보함으로써 뒷날 분쟁을 예방하고, 만약 소송이 일어나더라도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득열의 소지에서 매수인이 그의 배신을 의심했다는 것은, 바로 매수인이 자매자로 하여금 관에서 증빙 문서를 받아 오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매수인이 관의 입지를 받아 오도록 요구하는 경우 자매하려는 사람은 소지를 올려 관으로부터 자매에 대한 긍정적인 데김을 받아야 했다. 입지를 받은 다음 날 득열의 자매 거래가 이루어졌다. 득열은 전문(錢文) 13냥을 받고 ㉧조광득에게 자신을 팔았다. 득열은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미래 후손인 후소생까지 포함하여 매매했다. 이 거래로 득열은 조광득의 노비가 되었다.

2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득열은 자신을 팔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를 관청에 요청하였다.
- ② 득열은 나중에 자기가 낳을 자식들을 자매 거래에 포함시켰다.
- ③ 조선 정부는 생계유지와 생존을 위한 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 ④ 자매는 주로 양인의 신분에서 있던 사람이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 ⑤ 관청의 증명서는 나중에 분란이 생길 경우 자매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23. 위 글의 주된 설명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구조를 분석하여 설명하였다.
- ② 대상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 ③ 비교와 대조를 통해 대상을 설명하였다.
- ④ 대상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 ⑤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대상을 설명하였다.

24. ㉠, ㉡, ㉢의 관계로 적절한 것은?

- |          |     |     |
|----------|-----|-----|
| ㉠        | ㉡   | ㉢   |
| ① 매도인/매물 | 매수인 | 보증인 |
| ② 매수인/매물 | 보증인 | 매도인 |
| ③ 매도인/매물 | 보증인 | 매수인 |
| ④ 매수인/매물 | 매도인 | 보증인 |
| ⑤ 보증인/매물 | 매도인 | 매수인 |

25. ㉠~㉣에 대한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3점]

- ① ㉠; 예전에, 청원이 있을 때에 관아에 내던 서면(書面)
- ② ㉡; 관부에서 판결문을 쓰고 관인을 찍어 개인이 청원한 사실을 공증해 주던 문서
- ③ ㉢; 공사(公事)에 관하여 정한 규칙
- ④ ㉣; 지난날, 관가에서 부리던 노비
- ⑤ ㉣; 조선 시대에, 관아에서 어떠한 사실을 인정한 서면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압천(鴨川) 십리(十里)수벌에  
 해는 저물어……저물어……

날이 날마다 님 보내기  
 목이 자졌다……여울 물소리……

찬 모래알 쥐어짜는 찬 사람의 마음,  
 쥐어짜라. 바수어라. 시원치도 않아라.

여뀌풀 옥어진 보금자리  
 뜰부기 홀어멈 울음 울고,

제비 한 쌍 떠사다,  
 비맞이 춤을 추어.

수박 냄새 품어오는 저녁 물바람.  
 오렌지 껍질 씹는 젊은 ㉠나그네의 시름.

압천(鴨川) 십리(十里)수벌에  
 해가 저물어……저물어……

-정지용, 「압천(鴨川)」

(나)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한구죽죽한 어촌보다 어실프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布帆)처럼 달아 매였다.

남들은 기뻐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정크와 같아  
 소금에 절고 조수(潮水)에 부풀어 올랐다.

항상 흐렸한 밤 ㉢압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전설에 읽어본 ㉣산호도(珊瑚島)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취주지도 않았다.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오르면  
 시궁치는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쌌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인 양  
 다 삭어빠진 ㉤소라 깎질에 ㉥나는 붙어왔다.  
 먼— 항구의 노정에 홀려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이육사, 「노정기(路程記)」

(다)

해심(海心)에 감박이는 등불로 말미암아  
 밤바다는 무한히 감감하다.

물결은  
 발 아래 바위에 부딪쳐서 출렁이고  
 자유(自由)는  
 영원(永遠)한 우수(憂愁)를 또한 이 국토(國土)에 더하노라.

㉦어둠을 스쳐 멀리서 갈매기 우는 소리  
 깃가에 와서 가슴의 상처(傷處)를 허비고 사라지나니

아, 밤바다에 외치고 가는 시(詩)의 새여  
 그대의 길도 어둠에 차서 향방(向方) 없거늘  
 비애(悲哀)의 ㉧시인(詩人) 고뇌(苦惱)를 안고  
 또한 그대로 더불어 밤의 대양(大洋)으로 가라.  
 -김광섭, 「우수(憂愁)」

26.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에 대비된 인간의 고달픈 삶을 그리고 있다.
- ② 삶의 목표를 이루려는 헌신적인 노력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젊은 날의 아픈 기억을 통해 회한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격동하는 물의 이미지를 통해 고난의 역사를 암시하고 있다.
- ⑤ 고뇌를 품고 안주하지 못하는 처지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27.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 ㉢, ㉣는 모두 각 작품의 화자가 시적 대상으로 삼은 존재이다.
- ② ㉠, ㉢, ㉣는 모두 각 작품에 표현된 정서의 부산물이다.
- ③ ㉠, ㉣는 ㉢가 각 작품에서 형상적으로 그려진 존재이다.
- ④ ㉠는 ㉢와 같등하고 ㉣와 조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⑤ ㉣는 ㉠, ㉢가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형이다.

28.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내면을 표현함으로써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② 몇몇 행을 명사로 끝냄으로써 사물들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 ③ 주변 풍경이 내면의 상태와 조응하도록 그리고 있다.
- ④ 작품의 구조상 수미상관의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 ⑤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29. (나)의 ㉠~㉥ 중 (다)의 ㉢의 이미지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30.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물에 담긴 뜻을 찾아 내면의 고통을 해소하고 있다.
- ② 역설적 의미를 통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사물의 움직임에서 어떤 관념을 떠올리고 있다.
- ④ 사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 ⑤ 의문형으로 마무리된 것에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투옥의 경험으로 인해 더 나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중범죄자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면 더 많은 재활 기회를 갖으리라 보고 그들을 재활 시설에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재활 시설이 만원이 되고 감옥에 수감자들이 가득 차면서 재활 시설은 감옥 체계의 또 다른 일부가 되었다. 이에 사람들을 구류가 아닌 좀 더 자비로운 감도를 받게 할 통로를 마련하려는 개혁적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첫 번째가 ㉠보호관찰이다. 죄수가 선량하게 행동한다는 조건하에 법원이 임명한 사람의 지도와 감도를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허락받는다. 선량한 행동의 내용으로 부과하는 조건은 금주, 중죄인과의 접촉 금지, 직업 보유, 보호관찰사와의 약속 이행,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서약 등이다. 그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보호관찰은 취소되고 죄수는 다시 교도소나 유치장에 수감된다.

두 번째는 ㉡가석방이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는 가석방 위원회는 형기 만료 이전의 수감자를 석방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가석방의 조건들은

보호관찰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 이 역시 죄수가 조건을 어기면 가석방은 취소되고 잔여 형기를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세 번째는 ㉢청소년 법정이다. 너무 어려서 성인과 같이 취급할 수 없는 피고들을 청소년 심판관이나 판사가 심문하는 것으로 재판을 대신했다. 피고가 공적으로 처벌받을 만한지를 결정하지 않는 대신 어떤 처리가 그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법원은 아이의 호의적인 보호자여야 한다는 ㉠'부모로서의 국가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범죄 행위뿐 아니라 무단결석, 가출, 버릇없는 행위, 부모의 태만 등 지위 위반에 해당하는 것들도 고려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범죄자를 무조건 감옥에 가두는 것에서 '전환'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처음에는 이것들이 잘 실시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에는 범죄자를 관대히 다루는 것보다 구석의 처벌과 같은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믿음이 퍼졌다. 이에 전환 프로그램이 오히려 형사 사법에 의해 구류에 처해지는 사람의 수를 크게 증가시켰다. 오늘날 감옥은 전보다 더 커졌으며 더욱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약 10만 명의 청소년이 구금되어 있고 수십만의 범죄자가 가석방 상태이며 250만 정도가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70만 명 이상이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고 30만 명 이상이 유치장에 수감되는 것과 비교할 때 이는 전환 프로그램이 역기능을 한 결과이다.

1960년대에는 ㉣지역사회 교정이 적극적으로 권장되었다. 죄인을 수감하는 대신, 지역사회 교정에 처하는 것이 비용도 적고 쉽게 교정하는 방법이라고 여겨졌다. 실제로 1960년과 1975년 사이에 구금자의 수는 감소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에는 반등 현상이 나타났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가석방 위원회가 죄수들의 수감 기간 연장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청소년 치료 프로젝트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후원자로서의 봉사 정신을 상실하고 마치 이전의 교정 기관 감독같이 되어 갔다.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이 조금씩 감소하기는커녕 점점 더 많은 교정 과정이 범죄자들에게 부과되었다. 그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더 빨리 자유로워졌을지도 몰랐는데, 이제 교도소, 유치장, 청소년 교정 시설은 다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 ㉤스웨덴의 전환 프로그램을 참조할 수 있다. 이 나라의 구금 비율은 감소했고 교도소에는 소수의 죄수들만 엄격하게 구금시키고 있다. 범죄자들은 외부에서 일하기 위해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으며 심지어 밤에도 철창에 갇히는 경우가 드물다. 수감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활기차고 인간적인 교도소 분위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스웨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사회적 지원에서 나온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국가의 복지 혜택은 자선이 아니라 생산적 사회 질서의 토대로 생각된다. 보통의 사람보다 사회적 자원을 적게 갖는 범죄자가 비례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요구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스웨덴의 관행이 미국으로 직수입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가 시민의 복지를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은 스웨덴이나 미국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전환 프로그램이 고립된 상태에서 실현될 수 없으니 법보다 다양성의 보장이 사람들의 행동을 더 좋은 쪽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범죄자에 대한 전환 프로그램은 새로운 정치적 변화의 일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31.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혁적 제도의 도입 과정
- ② 미국 법체계의 허점
- ③ 전환 프로그램의 전개와 문제점 극복 방안
- ④ 청소년 교정 프로젝트의 실패 요인
- ⑤ 범죄자에 대한 형사 사법의 과잉 대응

**3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은 수감 위주에서 교정 위주로의 전환을 시도한 제도들이다.
- ② ㉠, ㉡, ㉢은 지역사회가, ㉣, ㉣은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③ ㉠, ㉡과 ㉢은 대상 범죄자의 연령상 차이가 난다.
- ④ ㉣은 ㉠, ㉡, ㉢이 지닌 전환적 의의를 계승한 제도이다.
- ⑤ ㉣은 ㉣이 드러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참조한 모델이다.

**33. ㉣의 적용 사례인 <보기>를 통해 ㉣을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_\_\_\_\_ <보기> \_\_\_\_\_

1967년 콜트라는 15세 된 아이는 이웃 여성에게 음란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아리조나 주 법정으로부터 산업훈련학교에서 6년간 훈련받는 형을 받았다. 이 형량은 주심 소년 법원판사에 의해 임의로 부과되었는데,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성인의 경우는 50달러의 벌금이나 지역 유치장에 3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해질 사건이었다.

- ① 피고가 성인이 아닌 아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군.
- ② 부모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여 나온 판결이군.
- ③ 아이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내린 판결이 너무 지나쳤군.
- ④ 국가의 역할을 부모와 동일시하여 관대한 처벌을 하였군.
- ⑤ 국가의 정책 방향을 충실히 따라서 내린 정치적 판결이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호랑이가 꾸짖기를,  
 “가까이 오지 마라! 구린내 난다! 내 들으니, 유(儒)란 족속은 유(兪)하다더니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는 세상의 나쁜 이름은 모두 모아 망령되이 내게 씌웠다. 이제 다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밟겠느냐. 무릇 천하의 이치는 하나뿐이니 호랑이의 성품이 악하다면 인간

의 성품 역시 악한 것이고, 인간의 성품이 착하다면 호랑이의 성품 또한 착한 것이다.

㉠우리 호랑이들은 초목을 먹지 않고, 벌레와 물고기도 먹지 않고, 누룩으로 빚은 술과 같이 퇴폐스럽고 어지러운 것들도 즐기지 않고, 자잘한 것들을 엮으려 먹는 것도 참지 못하지. 오직 산에 들어가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고 들에 나가 말이며 소를 잡아먹을 뿐이고, 일찍이 입이나 배에 누를 입히거나 음식 때문에 송사(訟事)를 한 적이 없으니, 호랑이의 도(道)야말로 광명정대(光明正大)하지 않느냐! 헌데 호랑이가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으면 너희들은 호랑이를 미워하지 않다가도 말이나 소를 잡아먹으면 원수처럼 대하니, 이것은 노루나 사슴은 인간에게 은혜가 없지만 말이나 소는 너희들에게 공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도 그 태워 주고 복종하는 노력과 충성하고 따르는 정성을 저버리고, 매일 도살하여 푸줏간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뿔이나 갈기마저도 남기지 않더구나. 그러고도 다시 우리 먹이인 노루와 사슴까지 침범해서 우리들을 산에서 먹을 것이 없게 하고 들에서도 굶주리게 하니, 하늘로 하여금 그 정사(政事)를 공평하게 한다면 너를 먹어야 하겠느냐, 풀어 주어야 하겠느냐?

무릇 제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하는 것을 ‘도(盜)’라 하고 생명을 잔인하게 해치는 것을 ‘적(賊)’이라 한다. 너희들은 밤낮으로 허둥지둥 쏘다니며,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뜬 채 노략질하고 훔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돈을 형(兄)이라 부르기도 하고 장수(將帥)가 되기 위해 자신의 처를 죽이기도 하니, 이려고도 또다시 인류의 도리를 논함은 말도 안 된다. 또한 메뚜기로부터 그 밥을 빼앗고, 누에로부터 그 옷을 빼앗고, 벌을 가두어 그 꿀을 긁어내고 심지어는 개미 알로 젓갈을 담가서 제 조상에 제사지낸다고 하니, 그 잔인하고 박정함이 너희보다 더한 것이 있겠느냐? 너희는 이(理)를 말하고 성(性)을 논한다. 특하면 하늘을 일컫지만 하늘이 명한 바로써 본다면, 호랑이나 사람이 다 한 가지 동물이다.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아 기르는 인(仁)으로 논하자면, 호랑이, 메뚜기, 누에, 벌, 개미들도 사람과 더불어 함께 길러지는 것으로 서로 거스를 수 없는 것들이다. 또한 그 선악으로 따지자면, 공공연히 벌과 개미의 집을 범하고 그 꿀과 알들을 긁어 가는 족속이야말로 어찌 천지간의 큰 도(盜)라고 하지 않겠느냐. 또한 메뚜기와 누에의 살림을 빼앗고 훔쳐 가는 족속이야말로 어찌 인의(仁義)의 큰 적(賊)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호랑이는 일찍이 표범을 잡아먹은 적이 없다. 이는 제 동포를 해치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리고 호랑이가 노루와 사슴을 잡아먹은 것을 해아려도, 사람이 노루와 사슴을 잡아먹은 것만큼 많지는 않다. 또한 호랑이가 말과 소를 잡아먹은 것을 해아려도, 사람이 말과 소를 잡아먹은 것만큼 많지 않을 것이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은 것이, 사람이 서로 간에 잡아먹은 것만큼 많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관중(關中) 지방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백성들 사이에 서로를 잡아먹은 것이 수만이요, 그에 앞서



산동(山東) 지방에 큰 홍수가 났을 때에도 백성끼리 서로 먹은 것이 수만이었다. 하지만 백성끼리 서로 잡아먹는 일이 많기로서니 어찌 춘추시대만 할까. 춘추시대에는 덕(德)을 세우겠다며 군사를 일으킨 것이 열일곱 차례나 되었으니, 피는 천 리를 흐르고 었어진 시체는 백만에 달했다.

그러나 ㉠호랑이의 족속들은 홍수와 가뭄을 알지 못하니 하늘을 원망할 까닭이 없고, 원한과 은혜를 모두 잊고 지내니 다른 동물에게 미움을 받을 까닭이 없고, ㉡오직 천명(天命)을 알고 거기에 순종할 뿐이다. 그러므로 무당이나 의원의 간교함에 유혹되지 않는다. 또한 타고난 바탕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까닭으로 세속의 이해(利害)에도 병들지 않는다. 이것이 곧 호랑이의 슬기롭고도 성스러운 점이다.

-박지원, 「호질」

34. 위 글에서 호랑이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과 자신을 비교하여 상대방의 잘못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대상에 대하여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설득하고 있다.
- ③ 대상이 자신보다 우위에 있음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논증하고 있다.
- ④ 자신의 입장과 대상의 주장을 통합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대상의 속성을 구분과 분류의 방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35. 위 글과 <보기>의 내용을 대비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우리는 설사 포악한 일을 할지라도 깊은 산과 깊은 골과 깊은 수풀 속에서만 횡행할 뿐이요, 사람처럼 청천백일지하에 왕궁 국도에서는 하지 아니한다. 또한 옛적 사람은 호랑의 가죽을 쓰고 도적질하였으나, 지금 사람들은 껍질은 사람의 껍질을 쓰고 마음은 호랑이의 마음을 가져서 더욱 험악하고 더욱 흉포한지라. 하느님은 지공무사(至公無私)하신 하느님이시니, 이같이 험악하고 흉포한 것들에게 제일 귀하고 신령하다는 권리를 줄 까닭이 무엇이요? 사람으로 못된 일 하는 자의 종자를 없애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하나이다.

-안국선, 「금수회의록」

- ① 위 글과 달리 <보기>는 호랑이의 흉포한 측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② 위 글과 달리 <보기>는 상대적으로 인간에 대한 공격성이 약화되어 있다.
- ③ 위 글과 <보기>는 모두 하느님을 청자로 하고 있다.
- ④ 위 글은 <보기>와 달리 호랑이와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지녔다고 본다.
- ⑤ 위 글과 <보기>는 모두 인간의 잘못을 창조주의 과오라고 주장한다.

36.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관점에서 호랑이를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답지 아니하다 하면 두려워할 것이며, 사람답지 아니한 사람이 나를 사람답다 해도 두려워할 것이다. 기뻐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마땅히 나를 사람답다 하거나 나를 사람답지 아니하다는 사람의 사람다움과 사람답지 아니함이 어떤지를 살필 뿐이다. 그러므로 오직 인자(仁者)라야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나니, 나를 사람답다는 사람이 인자이겠는가, 나를 사람답지 아니하다는 사람이 인자이겠는가.” 하였다.

-이달충, 「애오잠」

- ① 된장에 풋고추 박힌 듯해.
- ② 우물가에서 송충 찾는 격이군.
- ③ 오십 보 백 보이군.
- ④ 호랑이가 고슴도치를 놓고 하품하는 격이군.
- ⑤ 벼 심은 데 벼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고들 하지.

37. ㉠을 근거로 할 때, ㉡~㉣ 중 논점에서 벗어난 것은?

[3점]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의 말투는 점점 서로를 존중해 가고 있었다. “나는……” 하고 우리는 동시에 말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럴 때는 번갈아서 서로 양보했다.

“나는…….” 이번에는 그가 말할 차례였다. ㉠“서대문 근처에서 서울역 쪽으로 가는 전차의 도로리(트롤리)가 내 시야 속에서 꼭 다섯 번 파란 불꽃을 튀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오늘 밤 일곱 시 이십오 분에 거길 지나가는 전차였습니다.”

“안형은 오늘 저녁엔 서대문 근처에서 살고 있었군요.”

“예, 서대문 근처에서 살고 있었어요.”

“난, 종로 2가 쪽입니다. 영보빌딩 안에 있는 변소문의 손잡이 조금 밑에는 약 2센티미터 가량의 손톱자국이 있습니다.”

하하하하 하고 그는 소리 내어 웃었다.

㉡“그건 김형이 만들어 놓은 자국이겠지요?”

나는 무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사실이였다.

“어떻게 아세요?” 하고 나는 그에게 물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별로 기분 좋은 기억이 못 되더군요. 역시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발견하고 비밀히 간직해 두는 편이 좋겠어요. 그런 짓을 하고 나서는 뒷맛이 좋지 않더군요.”

㉢“난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히려 기분이 좋

있…….” 좋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했던 모든 그것에 대한 혐오감이 치밀어서 나는 말을 그치고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러자 그때 나는 이상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약 삼십 분 전에 들은 말이 틀림없다면 지금 내 옆에서 안경을 번쩍이고 앉아 있는 친구는 틀림없는 부잣집 아들이고, 높은 공부를 한 청년이다. 그런데 왜 그가 이래야만 되는가?

“안형이 부잣집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그리고 대학원생이라는 것도…….” 내가 물었다.

“부동산만 해도 대략 삼천만 원쯤 되면 부자가 아닐까요? 물론 내 아버지의 재산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생이란 건 여기 학생증이 있으니…….”

그러면서 그는 호주머니를 뒤적거리며 지갑을 꺼냈다.

“학생증까진 필요 없습니다. 실은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요. 안형 같은 사람이 추운 밤에 싸구려 선술집에 앉아서 나 같은 친구나 간직할 만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스럽다는 생각이 가끔 들었습니다.”

“그건…… 그건…….” 그는 좀 열띤 음성으로 말했다.

“그건…… 그렇지만 먼저 물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김형이 추운 밤에 밤거리를 쏘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습관은 아닙니다. 나 같은 가난뱅이는 호주머니에 돈이 좀 생겨야 밤거리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글쎄, 밤거리에 나오는 이유는 뭐니까?”

“하숙방에 들어앉아서 벽이나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는 나오니까요.”

“밤거리에 나오면 뭔가 좀 풍부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뭐가요?”

“그 뭔가가. 그러니까 생(生)이라고 해도 좋겠지요. ㉮ 김형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내 대답은 이렇습니다. 밤이 됩니다. 난 집에서 거리로 나옵니다. 난 모든 것에서 해방된 것을 느낍니다. 아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느낀다는 말입니다. 김형은 그렇게 안 느낍니까?”

“글쎄요.”

“나는 사물의 틈에 끼여서가 아니라 사물을 멀리 두고 바라보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글쎄요, 좀…….”

“아니,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를테면 낮엔 그저 스쳐 지나가던 모든 것이 밤이 되면 내 시선 앞에서 자기들의 별거벗은 몸을 송두리째 드러내 놓고 찢찢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는 일일까요? 그런, 사물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는 일이 말입니다.”

“의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난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로 2가에 있는 빌딩들의 벽돌수를 헤아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죠? 무의미한 겁니다. 아니 사실은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난 아직 그걸 모릅니다. 김형도 아직 모르는 모양

인데 우리 한번 함께 그거나 찾아볼까요. 일부러 만들어 붙이지는 말고요.”

“좀 어리둥절하군요. 그게 안형의 대답입니까? ㉮ 난 좀 어리둥절한데요. 갑자기 의미라는 말이 나오니까.”

“아, 참, 미안합니다. 내 대답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뿌듯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밤거리로 나온다고.” 그는 이번엔 목소리를 낮추어서 말했다. “㉮ 김형과 나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서 같은 지점에 온 것 같습니다. 만일 이 지점이 잘못된 지점이라고 해도 우리 닮은 아닐 거예요.” 그는 이번엔 쾌활한 음성으로 말했다. “자,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어디 따뜻한 데 가서 정식으로 한잔씩 하고 헤어집시다. 난 한 바퀴 돌고 여관으로 갑니다. 가끔 이렇게 밤거리를 쏘다니는 밤엔 난 꼭 여관에서 자고 갑니다.”

-김승욱, 『서울, 1964 겨울』

**3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 ‘나’와 ‘안’은 해방감을 느끼기 위하여 밤중에 만났다.
- ㉡ ‘안’은 밤에 나온 날이면 어김없이 여관에서 묵는다.
- ㉢ ‘나’는 매일 습관처럼 밤거리를 돌아다니곤 한다.
- ㉣ ‘나’와 ‘안’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 ㉤ ‘나’와 ‘안’은 실제했던 일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39. ㉠~㉤ 중 <보기>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끼리 묶인 것은?**

<보기>

현대 도시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개인주의, 인간관계의 익명성 등의 문제점들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 까닭에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내뿜는 자기만의 이야기와 그에 대한 가식적인 응대 등 진실한 의사소통의 단절을 경험하면서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기도 한다. 나아가 사회로부터 소외된 절대적으로 고독한 삶은 존재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에 이르기도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인물 간의 대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두 인물의 사유 방식이 동일하다고 하는 점을 유지하면서 대화가 전개된다.
- ㉡ 두 인물은 모두 대화의 내용을 심화시키면서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 ㉢ 대화가 진행되는 국면에 따른 두 인물의 미묘한 심리 변화가 드러나 있다.
- ㉣ 두 인물은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각자의 주장을 수정하고 있다.
- ㉤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두 인물이 처음에 가졌던 연대감이 강화되고 있다.

41. ㉔를 참고로 ㉓에 담겨 있는 인물의 심리상태를 파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나’는 ‘안’의 주장에 반론을 하려다가 반론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잠시 입을 다물었다.
- ② ‘나’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행한 행동들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 ③ ‘나’는 ‘안’의 주장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들킬까 봐 순간적으로 두려웠다.
- ④ ‘나’는 순간적으로 ‘안’의 의견에 동조하는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 ⑤ ‘나’는 ‘안’과 논쟁을 벌이기보다 이와 관련한 ‘안’의 생각을 더 알고 싶어졌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의 내용을 감상하고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주체라는 말에는 언제나 객체 혹은 대상이라는 짝이 따라다닌다. 왜냐하면 내가 사고하는 주체라면, 이 주체가 사고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먹는 내(주체)가 있다면 먹히는 음식(객체, 대상)이 있어야 하듯이. 주체가 어떤 대상에 관하여 사고한 결과가 진리인가의 여부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곧 사고하는 주체가 출발점이라면 진리는 궁극적 도달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① ‘나’는 ‘안’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고하는 주체로서 자신을 인정하게 되었어.
- ② ‘안’은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대상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어.
- ③ ‘안’은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주체와 대상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
- ④ ‘안’은 ‘나’와의 대화 속에서 사고하는 주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해.
- ⑤ ‘나’는 ‘안’과의 대화 속에서 사고하는 주체로서 대상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으려 해.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은 나를 수령이라 부르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투사는 아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지극히 경건한 어른이었고, 헤리콘 산기슭 포도덩굴과 올리브 수풀 속에서 사시고, ㉑내 어릴 적 생활은 늘 놀러 다니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포도나무나 베고 양도 지키고, 오정(午正)이 되면 양떼를 나무 그늘 한곳에 모아 두고 양치는 피리를 구슬프게 불며 지냈습니다. 그때 나의 동무들은 다 같은 농사꾼 아들이라 그들과 언제나 한 목장에서 양을 지키고 변변치 않은 점심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때였습니다. 양을 외양간에 몰아넣고 집 옆 고목 아래 앉으려니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옛날 전쟁 이야

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소세(小勢)의 스파르타 군사가 어마어마한 적의 대군을 산길에서 무찌르던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그때 전쟁이 무엇인지 몰랐으나 웬일인지 내 뺨에 더운 피가 피고, 꿈꾸듯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오셔서 내게 키스를 하시고, ㉒“무서운 전쟁은 생각도 말거라. 일찍 자야지.” 하시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공교롭게 그날 밤이었습니다. 때 아닌 말발굽 소리가 이산골의 평화를 여지없이 깨뜨렸습니다. 나를 길러 주신 어머니의 가슴이 잔인무도한 로마 병사의 말굽에 걸여차이고, 또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의 시신(屍身)이 내 앞에 구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검투로 나의 적수를 죽였습니다. 죽인 후 내가 그의 투구 끈을 끄르고 얼굴을 보았을 때 그는 나의 어렸을 때 벗이었습니다. 그도 나를 아는지 방긋이 미소를 머금고 길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웃는 얼굴은 우리가 어릴 적에 들어서 높은 낭떠러지를 타고 올라가 포도를 따 가지고 올 적에 웃던 바로 그 얼굴 같았습니다. ㉓나는 입회관(立會官)에게 그 벗의 시체를 거두어 장례를 치르겠노라고 하였습니다. 모래와 피로 범벅이 된 검투장(劍鬪場)에 꿇어앉아 간곡히 청하기도 했으나, 구경꾼들은 나를 비웃고 야유를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입회관은 매정하게 “뭐? 장례? 로마 사람 외에도 사람이 있단 말인가?”라고 하였습니다. 불행한 벗! 그의 혼령은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다가 멀리 선조의 영이 쉬시는 에리시아의 정토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㉔이번에는 제가 개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㉕오, 로마여! 로마여! 나를 길러 준 은인 로마여!

피리소리밖에 모르고 자라난 양치기 아이에게 무쇠 골격과 돌 심장을 준 자는 바로 로마입니다. 투우장에서 악마같이 적과 결투를 하며 사나운 누미디아 사자에게 거침없이 덤벼들도록 가르친 자는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여!

이 스파르타쿠스는 누런 티버 강물이 핏줄이 되어 그 속깊이 그대의 핏덩이가 영킬 때까지 그대에게 보복하지 않고는 참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짐승이거든 머물러 살이 썩 통통한 황소처럼 백정의 칼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만일 사람이거든 나를 따라 일어나 여러분의 조상이 험준한 산악에서 적을 막던 것같이 산길로 들어서서 원수와 싸우시오.

스파르타는 죽었는가?

여러분의 핏줄을 흐르는 그리스인의 피는 마르고 말았는가? 아, 동포여!

만일 싸우려거든 자기를 위해서 싸우라. 만일 살육하려거든 우리의 압제자를 살육하라. ㉖만일 죽으려거든 영예로운 싸움에 죽음을 바치라.

43. 위 글에 대한 감상과 이해의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청중에게 단정적 진술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어.
- ② 화자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해.
- ③ 화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비판함으로써 청중들을 설득하려 해.
- ④ 화자는 청중과 관련 없는 역사적 사건을 제시하여 주장하는 바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어.
- ⑤ 화자는 극단적인 두 상황을 제시하여 그중 하나를 청중들이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 ④ 한 줄의 시는 커녕/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그는 한 평생을 행복하게 살며/많은 돈을 벌었고/높은 자리에 올라/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 ⑤ 향료(香料)를 뿌린 듯 곱다란 노을 위에/전신주 하나하나 기울어지고/머언 고가선(高架線) 위에 밤이 켜진다.

44.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참고로 ㉠~㉥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대다수 인민은 피땀을 흘리며 토지를 갈아, 그 종년(終年) 소득으로 일신과 처자의 호구거리도 남기지 못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일본 강도에게 진공(進供)하여 그 살을 찌워 주는 영세(永世)의 우마(牛馬)가 될 뿐이요, 환해(環海) 삼천리가 일개 대감옥이 되어, 우리 민족은 아주 인류의 자각과 자동적 본능까지 잃어 노예부터 기계가 되어 강도 수준의 사용품이 되고 말 뿐이며, 강도 일본이 참혹한 수단을 써서 공포와 전율로 우리 민족을 압박하여 인간의 ‘산송장’을 만들려 하는도다. 이상의 사실에 거(據)하여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가 조선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 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殺伐)로써 징치(懲治)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 ① ㉠은 현재의 삶과 대비된 것으로 현재의 삶을 자각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봐.
- ② ㉡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은 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고 생각해.
- ③ ㉢은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켜주고자 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 ④ ㉣은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자신의 운명을 자각하게 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지.
- ⑤ ㉤은 현재의 삶을 극복해야 한다는 자각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어.

45. ㉡의 표현 방식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피아노에 앉은/여자의 두 손에서는/끊임없이/열 마리씩/스무 마리씩/신선한 물고기가/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쏟아진다.
- ②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 ③ 아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